

# 장성군-상무대 지역발전 '아름다운 동행'

郡, 대령 출신 협력관 채용  
지역탐방 문화해설사 지원  
자전거길·도서관도 지어줘

상무대, 영농·꽃심기 봉사  
40억원 식자재 장성서 구입  
'장성 사랑' 상품권 지급도

장성군이 상무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장성군은 올해 예비역 대령 출신을 협력관으로 채용, 협력 업무를 전담토록 한 것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우선, 국내 최대 육군 전투병과 군사교육시설로 전국에서 상무대를 찾는 초급 간부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문화관광해설사를 상무대 장병들의 지역 문화탐방 및 지역 투어에 지원토록 했다.

상무대는 육군 초급 간부들을 육성하는 산실로 보병·포병·기계화·공병·화생방학교 등으로 구성됐다.

또 군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데 공을 들였다. 상무대 내 무인 민원발급기와 농



장성군의 '멜로우시티' 조성을 위해 노란꽃을 심고 있는 상무대 군인들.

특산물 홍보관을 마련하는가 하면, 23억 원을 들여 상무아파트와 상무대를 잇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

상무대 군인 가족의 문화활동을 위해 공공도서관도 건립했다.

상무대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데 적극적이다. 매년 홍길동 축제 때 공연을 빼놓지 않는다. 전차, 장갑차 등을 전시하는 병영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양로원 세탁 봉

사, 하천 퇴적토 준설 작업에 재해복구 및 영농 활동까지 나서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다. 쌀, 고기, 채소, 과일 등 부대원 식자재도 장성에서 구입한다. 지난해 구입한 식자재도 40억원이 넘는다. 학교별로 매월 한 두차례 지역 음식점을 이용토록 했고 장성군 농특산물, 온누리상품권을 장병 격려용 상품으로 지급한다.

포병학교의 경우 지난해 포병학교장이 새로 취임한 뒤 부대 예칭을 '백룡대'에서 '번이중대'로 바꿨다. 장성 출신의 번

이중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화차를 만들어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

상무대는 더 나아가 전국 각지에 배치된 초군장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장성군 전사적 문화 탐방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장성 관광지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에 위치한 상무대와 적극적인 상생 활동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무대 장병들이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대숲 맑은 담양쌀' 미국 수출길

지난 4월 3t 이어 현지 호평 6t 추가 선적

'대숲맑은 담양쌀'이 미국 소비자들 식탁에 오르게됐다.

담양군은 최근 금성면 덕성리 마을회관 광장에서 '대숲맑은 담양 쌀' 미국 수출 선적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수출은 지난 4월 미국 뉴저지주 한남 체인을 통한 수출(3t)에 이어 두번째로, 현지에서 호평을 받아 6t을 추가로 선적하게 됐다. '대숲맑은 담양쌀'은 지난해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평가받은 바 있다.

'대숲 맑은 담양쌀'은 명품화단지에서 재배, 수확할 뿐 아니라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출하하고 당일 도정해 출고하는 '1일 원스톱 시스템'과 15일이 경과된 쌀은 전량 교체하는 리콜제를 확립,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했다는 게 담양군 설명이다. 군은 오는 11월 햅쌀이 생산되면 20t을 수출할 예정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담양 명옥헌 원림 백일홍 만개

담양 '명옥헌 원림'(명승 제58호)에 한여름 100여일간 핀다는 배롱나무(백일홍)가 흐드러지게 폈다. 배롱나무는 7월부터 9월까지 석달간 붉은 꽃을 릴레이로 피우기 때문에 '백일홍'이라고 한다.

(담양군 제공)

## 장성군 황룡 황미르랜드

해바라기단지 파종행사

13개 단체 170명 참여

장성 '황미르랜드 해바라기단지'를 만들기 위한 파종 행사가 11일 열린다.

장성군은 11일 오전 7시 황룡면 황미르랜드 조성 행사장에서 13개 단체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바라기 파종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무더운 날씨를 감안, 이른 시각을 잡아 파종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장성군은 10월 열린 '2017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에 '황미르랜드 해바라기단지'를 조성, 선보일 계획으로 참여단체를 모집한 바 있다.

황미르랜드는 올 가을 열리는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대표 정원 중 하나로, 3ha에 달하는 대규모 꽃단지다. 장성군은 이 일대를 백일홍과 해바라기로 꾸미고 산책로와 쉼터를 곳곳에 조성, 아름다운 공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여름밤 정취 만끽...장성으로 캠핑여행 오세요

한적한 곳에 있는 자신만의 별장을 찾아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무척 많다. 여름 무더위를 뚫고 가을이 들어올 틈이 생겼는지, 밤에는 바람도 제법 선선한 듯하다. 광주 인근 주말 캠핑을 즐기만한 장소를 찾는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테마파크에서, 학교에서=홍길동 테마파크 아영장은 편리하다. 홍길동 생가터, 풋살경기장, 산채체험장 등 홍길동 테마파크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최대 수용인원은 100명. 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휴파크 오토캠핑장은 수영장, 트램폴린, 물분수 등 시설을 갖춰 자녀들과 즐기기에 좋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장성을 안평장동길에 위치한 학교가자 캠핑장은 1995년 폐교한 안평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캠핑장이다. 러벤, 글램핑, 펜션까지 갖춰 목막 가도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 트램폴린, 레일썰매, 풋살장, 족구



홍길동 테마파크 내 휴파크 오토캠핑장.

장 등 가족들이 즐기만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삼계면에 있는 옛서당 캠핑농원도 폐교를 활용해 만든 캠핑장이다.

◇편백향, 호젓한 산사 풍경 가득=장성 '편백힐링타운' 인근에 위치한 오투스토리 캠핑장은 힐링스파, 편백 효소테라

피, 편백속박동 등을 갖춰 캠핑과 스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나무 조림지인 병풍산 자락에 위치한 라온 글램핑장은 침대,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까지 텐트에 마련해놓았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화순군 일자리대책 TF팀 첫 간담회

화순군이 '화순군 일자리대책 TF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군은 최근 김경호 부군수를 팀장으로 하는 일자리 대책 TF팀의 첫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TF팀의 역할과 각 부서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젊은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화순 실정을 반영한 특화된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군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16일까지 부서별로 마련한 일자리 계획을 취합하고 의견 수렴과 정책 실효성,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군의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검토, 화순군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북구, 삼각동 대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 209, 209-1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대지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 리조트 콘도/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 매매 36억
  - 온천지구 내 "직업 테마 파크" 등
  - 600억 투자 예정
  - 상담문의
- H. 010-3605-5000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